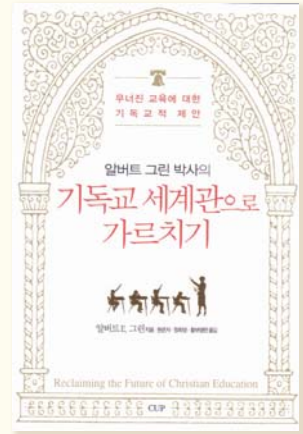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유희진 (인천계산교회 교육전도사)



알버트 E. 그린
현은자, 정희영 외 1명 | CUP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알게 모르게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등 사람은 보통 하루에 약 15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다양한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결정을 이끄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따른 각자의 세계관에 근거한 확신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안경'에 비유할 수 있다. 파란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강계 보이듯이 인본주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볼 것이고, 물질주의자들은 세상을 생명이 없는 물질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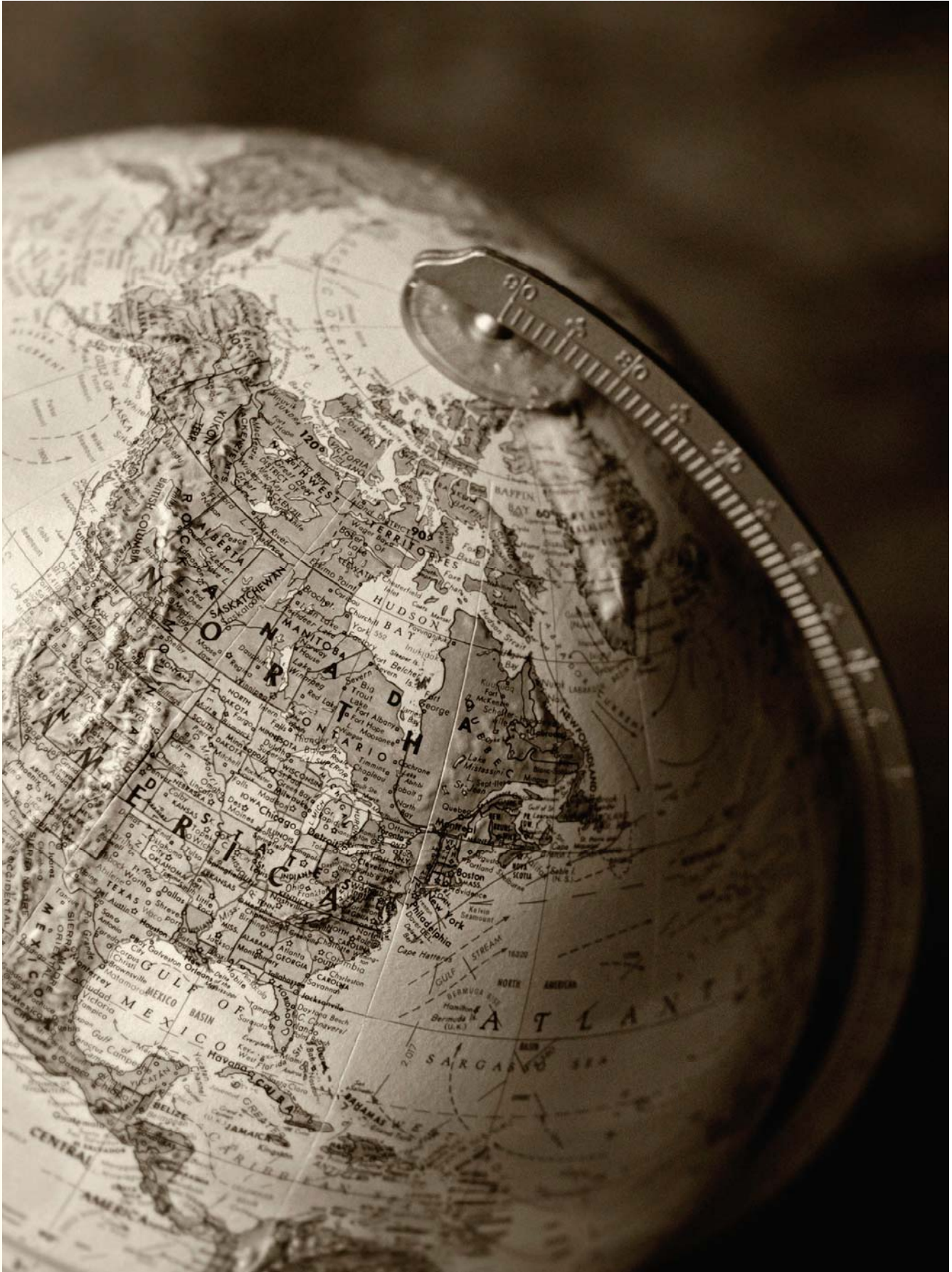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선뜻 '네'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

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부끄러운 말을 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선뜻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바로 이 책에서 그 고민과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알버트 그린 박사는 그 원인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기독교 세계관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신앙의 계보를 잇는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린 박사는 기독교교육의 회복을 위해 기독교 교육자들이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것인가 대한 밀그림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먼저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삶과 신앙의 이분법적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독교 세계관과 우리가 가르쳐야 할 참 지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학교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이렇듯 책의 제목과 구성만으로는 다소 딱딱하고 무







거운 느낌이다. 그러나 만약 독자가 그 때문에 이 책을 손에서 놔버린다면 하나의 귀중한 보석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억하기 바란다. 이 책의 매력은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사랑과 학습, 그리고 가르침의 환대 같은 신선한 내용은 교육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이 책은 우선 기독교교육을 말하는데 있어 이론적 측면에만 그친 것이 아닌 일상 가운데서 특히 세속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독교교육의 실재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숭배하고 있는 여러 우상들에 대한 무지를 깨우치고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갖는 의문들(삶과 신앙의 분리, 교육의 홍수 속에 참 교육의 부재 등)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필자에게 충격에 가까운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준 것은, 이제껏 교육을 하면서도 가르침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지식이라고 떠들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가치중립이라는 가면 속에 세계와 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거짓 지식을 실체도 모른 채 가르쳐왔던 것이다. 그래서 거짓 지식을 참지식인 줄 믿고 가르친 교육자로서의 무지가 나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약 3:1)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한껏 그 중함을 더했다.

이러한 모습이 비단 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독교교육을 하는 교사들에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묻고 싶다. 특히 기독교교육의 주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묻고 싶다. 아마도 대부분의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신들의 책무를 규정하지 모른다. 그러나 이 책을 한 번 읽어보라! 기독교교육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독교교육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만 구원받고 천국의 선물을 기쁘게 받아 누리려는 자가 아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상에 살되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세대를 분별하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취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양육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침을 실행하는 기독교교사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본서는 그러한 기독교교사가 되도록 하는 하나의 지침서이며,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교정서이자 도전을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독서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한 번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가에 꽂아놓고 해를 거듭해서 여러 번 곱씹어 읽어야 그 가치와 진가를 발견할 수 있다. 필자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기쁨을 누리듯 여러분 또한 읽을 때마다 새롭고 새로운 깨달음의 기쁨과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길 바란다.



유희진

인천 계산교회 교육전도사로, 현재 총신대학교 기독교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다.

